

사제 피정 일기

어느 한 주간

심홍보 지음

기독교서적

차례

서문, 놀러	5
첫 날, 주님을 찾아 떠나는 길	6
둘째 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9
셋째 날 오전, 와서 보아라	14
셋째 날 오후, 포도주가 없구나	19
넷째 날 오전, 내 아버지의 집	22
넷째 날 오후, 성전을 허물어라	28
다섯째 날 오전, 구원을 받게	32
다섯째 날 오후, 성체조배	37
여섯째 날 오전, 나는 착한 목자	41
여섯째 날 오후, 영과 진리 안에서	49
일곱째 날 오전, 가거라	56
일곱째 날 오후, 저는 믿습니다	67
여덟째 날, 부활이요 생명이니	76
파견, 집으로 돌아오며	84

놀이

“피정 가신다면서요?”

“예”:

“피정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것이라네요.”

신자들 중 몇몇이 피정 간다고, 자연 피정이니 뭐니 하면서 여기 저기 기도보다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일상에 배어있는지? 속으로 기도하러 가서 코피 터지는 꼴을 못 보셨나?

“놀러?!!……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노는 거죠.”

미사 때

뭔가 잘못된 것도…… 불만스러운 것도 아닌데도, 뭔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은 갈증…… 할 것 다 하고, 진행될 것 다 잘 진행되었어도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듯한 마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2%라고 말했던가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친우들과 술을 마시기도 하고……, 저는 그럴 때 피정을 갑니다. 긴 사순절의 터널도 나오고 부활도 했으니…… 가서 쉬면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보충(?)이라도 하고 와야 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주님을 찾아 떠나는 길

피정 중 분당을 맡아줄 K 신부님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갈까 한잠 자고 갈까? 산책하고 갈까?”
“한잠 자고 가시죠. 차 몰고 가시는데……”
“혈당 때문에 졸린지, 피곤해서 졸린지 모르겠어……”
드르렁 드르렁~!

한잠 자고 교정 볼 원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나 인쇄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누웠다. 그런데 pdf 양면 인쇄를 A4 한 종이에 맞춰 인쇄해서 그런지 인쇄기가 녹장을 부린다.

‘아이고 인쇄 걸어놓고 잘 걸’

마음은 급한데…… 매일 마음속에 담아만 놓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제의방에 뭐 하나 주문하려 해도, 그걸 요청으로까지 옮기려면 머릿속에서만 뱅뱅 근 1년이 걸린다. 미사 그 자체에 열중해서 그런지, 아니면 느낄 때 그 뿐이고 정작 지나면 또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잊어버리는지…… 실제 생각은 많이 해왔어도, 차근차근 준비해 놓지 않았으니…… 또 어떤 때는 준비 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대로 행동에 옮기려니 마음이 급하고, 짜증이 많이 난다. 평소에 그렇게 많은 서빙을 했던 인쇄기건만, 애꿎은 불평을 듣는다.

“이 선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

피정의 집에서 접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웬지 모르게 방이 한 쪽만 미지근하고 책상 근처는 차디찬 냉골이다. 물이라도 한 잔 먹으러 내려갔다가 지구장 신부님을 만났다. 처음엔 햇빛이 가려 잘 알아 뵙지 못하고 지나쳤다. ‘혹시’ 하는 마음에 접수처에서 방번호를 확인하고 인사를 갔다 왔다. 그런데 돌아와 방에 들어오면서, 그 방은 따뜻했던 느낌이다. 방구석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전기 히터 스위치가 있다. 스위치를 올려놓고 성당에 기도하러 간다.

저녁 기도를 마치고, 식사하러 갔다. ‘저염도 반찬에 달고 매운 것 뺀 음식’을 나만을 위해 장만했다고 건네주는데, 반찬마다 그릇이 달라 한 상 가득하니…… 다른 신부님들 뵙기에 민망하다. 아 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묻는다……

“왜 그래?”

“왜 매운 것 못 먹어?”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매운 음식 말고 뭐 먹을 게 있어?”

“그럼 신학교 어떻게 지냈어?”

“그냥 1식 2찬으로 견뎌요……”

어디 가나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나니, 이거 참 겸손과 가난은 머 나먼 손님이다.

식사하고 돌아왔건만 방바닥은 그대로 냉골이다. 담당자에게 고장이 아닌지 확인하고, 자꾸 작동 패널의 불이 꺼지길래 담당자

를 다시 찾았다. 결국 다른 방으로 옮겼다. 그래도 북쪽이다. 예전에 신학교에서는 나이든 순서대로 남쪽에서부터 방을 배정했는데…… ‘이번에는 왜 북쪽에 배정했을까, 그것도 봄에…… 그래도 뭐, 잠시니까. 이 방은 난방이 잘 되겠지.’ 조금만 이상해도 다른 생각이 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신자들도 신부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불편해 할까 싶다.

7시 30분 성체 강복을 마치고 피정 안내가 있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요한 복음 묵상 피정은 대침묵 피정입니다. 낮에 식사하고 산책하시면서 묵상 내용을 나누시는 것은 허용되지만, 식사시간까지도 대침묵으로 피정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크~! 몰랐네…… 누군 하루에 2만 단어를 혀끝에서 놀려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체하겠군!’

요한 복음 묵상이고, 김영남 신부님께서 하신다니까 왔지…… 그게 뭐 대침묵 피정일 줄이야…… 그래도 다행이지 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쉬고 싶을 때 자유롭게 쉬고, 조용하고 편안할 테니……!

성체 강복을 마치고 돌아와 자리에 누우며 생각했다.

‘오늘은 일찍 쉬어야지. 첫날은 항상 일찍 자는 것이 좋더라. 혹시 꿈 속에서 성령께서 노래를 불러주시기를 청하며…… 기대를 품고 잠을 청한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워하나이다.’(시편 42,2 최민순 신부님 역)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07시 30분 아침기도를 마치고, 08시 식당에 들어가서, 특별(?)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까지도 없던 목련의 꽃망울이 피기 시작했다. 때마침 축복의 은총으로 보여 주시나 보다.

09시 30분 피정 강론
오랜만에 강의를 듣는다.

지도 신부님이 “연수가 아니라 피정이니까, 공부하듯 성경을 보지 말고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들으라.”고 하신다.

1¹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²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³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4⁴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⁵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¹⁴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지도 신부님은 복습 차원에서 요한 복음사가에 대해 설명하시고, 로고스 찬가(요한 1,1-18)를 설명하신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의 사조가 활발했던 시기에 살았다. 성 요한은 그런 사조 속에서 유대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님을 로고스(말씀)라고 서술했다. 그리스도께서 영만이 아니라 육으로, 생각이나 정신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시는 분으로 소개했다고 해설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성경과 성전을 통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한 사도가 당대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만나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 이렇게 써본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되씹어

영양가 많고 맛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시어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을 뵈고 감흡케 하여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심으로써
주님이 세우시는 하늘나라를 이땅에 이루도록 헌신케 하시나
이다.

11시 20분 미사

강론 시간에, H 신부님이 요한 복음을 쓰면서 평생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신다. 한 번도 손 끝에, 펜 끝에 힘이 들어가 본 적 없이 대강 대강 흘려 쓰셨다던 분이, 복음을 필사하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눈이 보이고, 손에 힘이 들어가 힘차게 쓰고 계시다는 신앙 고백을 하셨다. 그래서 요즘은 골프도 끊고 4년전부터 복음을 필사하고 계시단다. 노익장이신가, 은총의 기적을 체험하신 때문인가?

점심을 먹고 올라와 보니, 옛 본당 자매님의 문자가 와있다.
“내일 수녀님이 부활 하루 휴가를 받아서 화려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떠실지?”
“야속기도 해라. 전 지금 교구 사제 대침묵 피정중”
‘이래서야 어떻게 침묵이 이루어질까? 유혹거리만 생기네…….’
쏟아지는 잠. 피정만 들어오면 쏟아지는 잠…… 드르렁 드르렁~!

3시 40분 잠에서 일어났다. 배가 고프다. 점심 때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하는 일 없이 잠만 잤는데, 왜 배고픈지…… 1층 로비에서 외팔 한 조각 물고, 밖으로 나왔다. 산책로에서 가장 짧은 ‘기도이동로’를 선택해 걷는다. 은경축 때 조카 손녀가 선물해준 묵주 일단 팔지를 손에 들고……

‘크~ 이 길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구나! 세상에 간단한 게 없어……’

30분의 산책을 마치고, 대강 씻고, 4시 30분 성당에 들어가 앉는다. 엉덩이가 배긴다. 매일 아침 미사를 마치고 한 시간 성체조배를 하는데, 그 때마다 키가 작아서 그런지 다리가 땅에 닿질 않는다. 그래서 허리를 곧추 세우고 기도할라치면, 엉덩이가 배기고 장딴지가 아프다. 성당을 제일 편하고 안락하게 꾸며야 할 텐데…… 우리 성당 신자석에 쿠션있는 내자 방식 샘플을 선택하고 들어왔는데, 지금쯤 한창 깔고 있겠지. 신자들이 편하게 장시간 앉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5시 30분 저녁기도와 식사를 마치고 방안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낮에 다 못한 묵주기도 빛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를 바쳤다.

7시 30분 활명수를 마시고 성체조배에 들어가 묵상을 이어간다.

8시 40분 끝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R 신부님과 L 신부님의 문자가 와있다.

“저는 지금 교구 사제 대침묵 피정중입니다.”

라는 답신을 보냈더니, L 신부님이 곧바로 문자를 보냈다.

“피정 마치시면 전화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를 해서요 ㅎㅎ”

참, 사목방문 전에 교구에 밀린 교구납부금 다 보내야지……

사목방문자료 인쇄부수에 구역장들과 임원들도 포함시켜야겠구나……

이 많은 상념들이 언제 다 없어지고, 피정에 몰입하게 될까?

동생 수녀가 ‘나자렛 예수 1권’의 묵상자료를 또 문자로 보내왔다. 핸드폰을 알람으로 사용하려니, 자꾸 전화와 문자가 온다. 진동으로 해 놓았건만 신경 쓰이는 것은 매일반이다. 전화나 문자는 사절하고 알람만 울리게 하는 기능은 없을까? 아니면, 다음엔 알람시계만 따로 가져와야겠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드르렁 드르렁~!’



와서 보아라

7시 눈을 떴다.

아니다 다를까 코 양끝 언저리가 부어있다. 어제 하루 세 시간 기도했다고 벌써부터 붓기 시작하다니! 어-휴!

일어나 샤워하고 성당에 갔다. 아침기도를 마치는데 진행자가 공지사항이 있단다.

“우리 피정을 지도해 주시는 김영남 신부님의 부친 김 필립보 옹께서 오늘 새벽 주님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은 단체 개인 피정으로 바뀝니다. 그 대신 묵상 자료는 김영남 신부님께서 해당 일자마다 묵상하시라고 작성해 놓은 것 드릴 테니 묵상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아니, 겨우 하루 들었는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어찌겠는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가서 예정했던 대로, 집필하던 ‘주일 전례를 준비하며’ 책이나 마저 써야겠다.’

아침을 먹고 커피를 입에 대는 순간 배가 땅긴다.

‘아차!’

설사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좌~좌, 화장실을 두세 번 드나들면서, 이거 또 무슨 야로인가 싶다. 아침에 설사를 하면 그날 오전은 쉬어야 한다. 몸이 축 처지고 진이 빠져서. 미사나 가정 방문이나 종부성사나 꼭 해야할 일이 아니라면 오전을 누워 지내왔다. 일생을 친구삼아 지내온 억울하고도 아쉬운, 아니 그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찌면 쉬라고 아픈지도 모른다.

이거 쉬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인가? 좀 전까지만 해도, ‘주일 전례를 준비하며’ 쓰라던 주님의 뜻이라더니…… 금방 또 변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던데…… 난 갈대보다도 더 빨리 변한다. 더군다나 자기 마음 바뀌는 것을 주님의 뜻과 연관하여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오만한 오도방정이 아닐 수 없다.

침구를 침대에서 온돌로 내려놓으며 자리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또 생각에 잠긴다. 침구를 바닥에 내려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누우면 등은 따뜻한데, 그 따뜻함으로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아 위가 냉골이면 감기가 드나? 아니면, 반대로 침구를 침대에 올려놓고 바닥을 계속 따뜻하게 때게 해서 방안 전체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자는 것이 좋은가? 아니, 지금 당장 배가 아프니까 배를 따뜻하게……

자리에 누워 또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온다. 이왕 온 김에 요한 복음을 묵상하게 되니, 평소에 쓰고 싶던 ‘요한 복음 묵상을 써보자.’ 묵상 내용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잘나지도 않은 내 개인 묵상은 줄이고…… 일기 형식으로 하루 일과를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보자……

미사 강론 때 K 신부님께서 20여 년 전부터 부활시기에 사도행전을 읽는다고 하신다. 교회의 선교 열정이 피어나는 그 때 그 시기를 되새기며 복음화의 열정을 되새긴다고 하신다. 오늘 독서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6장의 일곱 봉사자, 부제의 선발, 7장 스테파노의 증거와 순교, 8장의 필립포스의 사마리아 전도 성공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 9장의 사울의 회심으로 인한 바오로의 재탄생, 10장의 베드로의 코르넬리우스 방문…… 이러한 체험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냉담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신다.

오늘 묵상 주제인 요한 복음의 1장 35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첫 제자들’

36절 세례자 요한의 예수님 증언,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37절 요한 제자들의 추종

38절, 예수님의 환대, “무엇을 찾느냐?”

38절, 제자들의 질문,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39절 예수님의 초대, “와서, 보아라.”

그런데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고는 기록했지만, 정작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각자가 기록해야 할 열린 부분이다. 체험의 장이 각기 다르므로, 우리는 각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는 신앙의 장으로 초대받았다. 주님을 잘 만나, 체험한 사람들은, 41절에서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에게 그랬듯이, “우리는 메시아(그리스도)를 만났소.” 라고 선포할 것이다.

신앙 체험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에서부터 일반신자 교육과 예비신자 교리교육기간에 신비교육을 넣었지만 혹여 또 하나의 짐만 되지 않을까 저어된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실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이론보다 삶이, 설명보다 체험과 증언이 이 시대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듯하다.

나의 지난 기도 생활을 바치고 있는 체험들을 되돌아본다.

신학생 7박 8일 피정 동안의 철저한 이성적 불신속의 주님체험.

부제반 30일 피정 동안의 죄 묵상과 십자가 체험.

보좌신부시절 7박 8일 교구 사제 피정중 세족례 체험.

보좌신부시절 30일 피정 동안의 예수님의 세례 체험 등등

능동적인 기도 체험 외에도, 수동적인 기도 체험이랄 것도 있었다.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 시에 꿈속에서 잠꼬대처럼 복음성가를 생시처럼 부르며, 부르는 나머지도 주님을 마치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야말로 흥에 겨워 행복했던 순간.

올해 은경축 피정 중, 의식이 돌아오면서 성령께서 내 몸 위에 시편 성가를 흘러보내 주시는 소리를 느끼며,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노랫소리에 이어,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따라 부르며 감격했던 순간들……

한 번의 체험은 또 다른 더 높고 깊은 체험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들은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고, 주님께서

포도주가 없구나

12시 10분 밤묵상

자다가 문득 잠이 깨었다. 그리고 낮 시간에 글쓰기 시작하느라 지나친 카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한 마리아(2,1-11)가 생각이 났다.

요한 복음 2-12장을 표징의 책이라고 한다면, 2-6장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다고 한다. 요한 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징은 2,1-11의 카나의 혼인잔치, 4,46-54의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심, 5,1-9 벳자타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심, 6,1-15 오천 명을 먹이심, 6,12-21 물위를 걸으심, 9,1-12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심, 11,1-44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심이다.

성모님은 2장 3절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신다. 왜 그 말씀을 예수님께 했을까?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나 이어지는 기사의 내용을 볼 때 그냥 그렇게 혼잣말 하듯 던진 말은 아닌 듯싶다. 성모님은 예수님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신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닐 듯싶다. 두 분의 이어지는 감정의 공유를 바라볼 때, 평소에 이 카나의 기적처럼 공현적은 아닐지라도 이미 집안에서 어떠한 예표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 최소한 어머니는 이들에게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아왔을 수 있다. 또 아들도 그러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들켰는지, 아니

체험을 통해 현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늘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초대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한 그 순간들이 체험으로 나에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힘이다. 이 모든 체험들이 나의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살면서 갈증과 갈망 속에서 헤맬 때,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셨는지를 헤아려 기억해 낸다. 그 때마다 다시 주님께 힘을 얻으며 새로운 체험을 시작한다. 또 계속되는 체험으로 나를 새롭게 주님과 교회에 헌신토록 해주고 있다. 우리 신자들도 주님 체험이 자주 그리고 많고 깊었으면 좋겠다. 신앙이 더욱 굳세어지고 우리 교회가 튼튼해져서 세상에 구원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확 휘어잡아 강렬한 체험을 심어 주십시오.’



면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자가 공유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 설정이 가능해 보인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을까? 평소에 나와 함께 활동하는 총구역장 등 사목협의회 간부들은 나에게 어떤 기대와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을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드러난 나의 사도직 소명은 무엇일까? 아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건 다행인지, 불행인지. ㅋㅋㅋ……

이러한 어머니의 기대를 알아차린 아들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말한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2,4) 예수님께서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청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굳이 자신의 능력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으신다. 다른 어느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생활을 시작하실 양이었는데는 몰라도, 여기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청을 내치지 않으신다.

어머니의 기대가 자식에게 거는 과도한 기대인가?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아들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이 과도한 것이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인가? 허상과 탐욕에 의한 기대라면 스트레스일 수 있겠지만,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대와 청이라면 과욕이라기보다는 지지와 칭찬일 수도 있겠다.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5절) 어머니는 아들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 설사 그가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그 어머니는 오늘 이

순간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어머니만의 아들이 아니며, 이제 기적을 베풀실 수 있는 능력자요, 기적을 베풀기를 청할 때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홀로 결정하고 선택할 독립된 결정권자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청한다. 그리고 기대한다. 아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에 어떻게든 포도주를 만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백성을 구하시고자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이 기적사회를 마치며 요한 복음사기는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11절) 주님께서서는 어머니의 청을 들으며, 오늘이 그 때임을 아셨으리라.

여기 이 카나의 기적사회를 통해 마리아의 청원 기도 형식을 바라본다.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희망과 가난의 자세.

주님께서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주님의 자비와 선택에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순명의 자세.

주님께서 들어주시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주님의 명이 떨어지기를 대기하는 사랑과 정결의 자세.

‘주님, 어서 오시어,
믿고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를 맞갖게 만드시어
주님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 아버지의 집

헉! 혈당 107이다. 어제는 98이었고…… 어제는 잘못 나왔을 수도 있으려니 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낮게 나왔다. 공복혈당이 160을 오르내리던 내게 이게 무슨 일인가?

당뇨 치수를 재는 스트립이 너무 오래되어 유효기간이 넘은 것일까?

K 님이 콩을 원료로 했다면 건네준 당약을 2개월 먹은 이유일까? 지난 달 말 130정도로 내려가기도 했지.

집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아예, 소금을 팍 줄인 저염도 음식.

내부에선 영적으로 치열해도,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는 것 그리고 충분하고도 남는 잠시간 등이 그 이유라면 이유겠다.

아침 식사 때 우리 지구 부지구장 P 신부님이 드시는 것을 보았다.

‘저렇게 조금 먹어서 어떻게 저 체구를 유지하지! 아니, 어쩌면 내가 과잉섭취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집에 가서 식단을 바꿔봐야겠다. 아예, 저염도 음식으로…… 아니면 저녁을 여기서 아침 먹듯이 빵과 버터와 햄과 치즈랑 채소만 먹든지.’

시카고 유학시절, 한 주 600여 쪽을 읽어오라는 통에 밥을 차려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오른손으로 책을 잡고 왼손으로는 땅콩 버터와 슬라이스 칠면조와 치즈를 섞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버텼던 생각이 난다. 그래서 가끔 당뇨 때문에 햄 대신 칠면조를 골랐을 때, 상점 주인이 이슬람교도냐고 물었던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엔 밥과 백김치, 김, 북어포, 멸치, 된장국만으로 지냈던 시절 그 때도 혈당이 90이었다.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본당신부하면서 성당 짓는다고, 공복 혈당이 230이 웃돌고 고혈압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었다. 성당 다 짓고 공부하러 오면서 혈당이 오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웬걸 혈당이 90으로 떨어지자, 본당 신부의 스트레스가 그만큼 심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었다.

조식 후…… 오늘도 속이 안 좋다.

‘생 채소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과민성 대장염이겠지……ㅋ ㅋ ㅋ’

벌써 9시 30분. 그 몇 자 끄적거리다 보니 시간이 벌써 묵상시간이다.

‘지금은 묵상시간이니까 묵상하고, 이따가 점심 먹고 쉬자!’

성전정화(요한 2,13-22)

2,14-15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성전 장사치들을 쫓아내셨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16절) 예수님의 이 행위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물을 바치지 말라는 것인지 정

확치 않다. 장사를 하지 말라면, 장사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는 지적이다. 장사하지 말라는데 장사해도 괜찮은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공동체 전체의 염원을 담은 성전건립이나 교육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장사나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장사 등은 해도 괜찮아 보인다. 모금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익을 차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관건일 듯싶다.

또 성전이 다목적실이 아닌, 언제나 주님을 찾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는 최고의 쾌적한 장소이면 좋겠다. 편안하고 포근한 의자와…… 향수라도 뿌려 놓아야 할지…… 공공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4시간 냉난방과 환기를 자동으로 가동해야만 하는 미국의 시스템처럼? 지나치게 인위적인 허상은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단순하고 소박한 곳이면 좋겠다. 장시간 방해 받지 않고 주님 품안에 안겨있듯 편안하고 포근하게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들로 지었으되 차디차거나 딱딱하지 않고, 지엄하고 경건한 곳이나 지나치게 위압적이거나 침침하지 않고, 밝고 맑고 산뜻하여 친근하게…… 어찌면, 이러한 바람이 성전 건물만으로는 부족하여 공동체가 곁들여 채워야하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한 쪽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용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다. 그런 것을 성전에서 판매치 못하도록 하신 것은 더 이상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4,24) 라는 말씀을 미리 언질로 주신 듯하다.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일깨

워주고 이끄시는 영을 따라 예배드리고 있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예배드리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10시 30분, 11시 20분 미사를 위해 성당으로 올라가 묵상을 계속한다.

예수님의 성전정화 사건을 두고 17절에서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시편 69,10) 라는 시편구절을 상기한다. 제자들은 이를 보며 신나고 마음 한 구석으로 고소해 했을지도 모른다. 권력을 파괴하는 것이 고소하고 통쾌한 것은 그 권력을 누리려고 장악하려는 이들의 공통된 심리인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틀려 보이기도 한다.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좋게 보아주는 이는 드물다.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그 틀린 것을 교정한다고 해도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내리라는 보장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 틀린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을 계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성숙되는 길이다. 보완적인 시도를 넘어서, 자신이 가지지도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남의 장점과 소질을 자기도 얻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빼앗으려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탐욕에 불과할 일이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계발하는 것이 자기 정화와 자기 성숙의 지름길이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은총의 제사 제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명확히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런 신념체계에서 파생되는 제물 장사는 어처구니없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예배를 드리지만”(4,21-22),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4,23)를 열정적으로 일깨우시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

J 신부님은 오늘 미사 강론에서 김영남 신부님께서 피정자들의 목상을 위해 남겨주고 가신 시카고 버나드 추기경의 책, ‘평화의 선물’을 요약 설명해 주셨다. 그 중에 특별히 기도와 다른 이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치료를 받으시는 추기경의 모습을 언급하셨다. 병문안을 온 친구들에게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게, 아프면 아픔을 참느라 정신을 집중할 수 없다네……” 라며 기도에 대해 권면했다고 한다. 그리고 췌장암에 걸려 병상에 있으면서도 다른 일반 환자와 동등하게 차례를 기다리며 같은 의료 처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겸손을 전해 주셨다.

점심 후, 앞의 P 신부님이 걸으며 다가와 물었다.

“당뇨 때문에 짜게 안 드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혈당이 몇이세요.”

“요즘 많이 내려와서 여기서는 98-107이에요.”

“저는 약 안 먹고 200이 넘어, 요즘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좋아. 200이 넘으면 장기가 손상된다는 데…… 내가 미국에 있을 그 때 그 수치구만. 이 신부님도 미국에서 사목하시느라 췌장이 많이 손상되셨겠네…… 그래서 그렇게 짭짤 드시는구만……’

“혹시 기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내일 아침 재러 갈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같이 피정에 참석한 사제들 중에도 여기 저기 당원(당뇨병 환우)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나처럼 저염도 음식을 요구하는 분들은 없다. 내가 유난한 것인지, 그분들이 티내지 않고 겸허한 것인지……

“저기, 자꾸 설사를 하는 것을 보니, 야채가 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데쳐주세요.”

또 유난을 떨었다.



성전을 허물어라

오후 묵상

같은 예수님의 정화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발끈한다. 그들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2,18) 라고 따져 묻는다. 성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향유를 누리던 이들은 묻는다. ‘네가 뭔데 내가 세운 권력과 수익의 창출 제도를 해치는가?’ 어느 누구와도 권력과 그에 따른 향유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권력의 속성이리라.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계속 자신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제한아래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이들만 자신 곁에 두고 찢끔찢끔 나눠주려고 하겠지. 권력에 취한 그들은 그 권력이 지향하는 바가 자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느님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위해 세운 조치들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서도 그렇게 다 그 정신과 목적대로 진행될까?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에 적절하게 맞추려는 걸맞은 시도가 또 다른 함정이 되지 않을 길 유의하며……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19절) 라고 항변하신다. 세

상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이 간직한 권력, 자신이 소유했다고 느끼는 그 무엇이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인지도 모른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자기가 중시 여기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간직하고 믿고 의지하던 그 무엇이 그 무엇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채우지 못하거나 어느 누구의 손아귀에서 왜곡되고 놀아날 때가 있다. 그 때 그 무엇은 이미 자신이 간직한 것도 아니며, 모두에게 중요한 것도 되지 못하고 허물어진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신자들은 사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세상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유대인들은 화가 날 대로 나서, “이 성전을 마흔 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20절) 하고 힐난조로 대든다. 드디어 꼬트머리를 잡았다. 내용과 의미와 가치의 중요도와 진정성보다는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하던 끝에 현실적인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하고, 그가 싫으면 그의 어떤 것도 다 싫어 보인다더니.

진정 회개하고 정화해야할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새로워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한 개인이 다른 어느 한 개인을 받아들이는데 최소한 사흘이 걸린다고 한다. 죽었다가 부활할 기간만큼 우연스럽게 같다.

복음사가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21절) 라고 재해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22절) 라고 후기한다. 우리는 사흘 만에 되살아난 성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자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땅에서 천상교회를 향해 순례하고 있는 교회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1코린 12,27) 라고 말한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워나간다. 아울러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에페 2,21) 라고 말한다. 비단 교회 건물이 성당 건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자라난다. 하지만 이 지상교회는 나와 같은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공동체이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모범을 보이고 도움이 되는 커녕 우리가 도움받기를 바라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죄까지 지으면서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사명을 이어갈 제자 공동체요 사도 공동체로 삼으셨다.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생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계시다. 사도 바오로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1코린 3,16) 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그는 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1코린 6,19)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성령께서 보호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그러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라고 확신에 차서 복돋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로마 8,29-30)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은 4.19였다.

주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나은 인간 존재와 삶을 위해,

헌신한 연령들을 굽어보소서.

구원을 받게

비가 온다.

아침에 P 신부님이 당뇨 체크하러 온다고 했으니 서두른답시고 기계에 스트립을 먼저 끼고 피를 묻혀야 하는데, 꼭 끼지도 않은 채 피를 묻혔다가 에러가 나는 바람에 애꿎은 스트립 하나만 날렸다. 또 급하게 샤워한다고, 밴드가 물에 다 젖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호들갑을 떨다가 실수를 연발하는지.

빨래도 요즘은 웬지 전 같지 않고 슬슬 귀찮고, 아침에 성당 들어가기 전에 씻는 시간도 10여 분 밖에 안 돼서, ‘집에 가서 제대로 빨지 뭐!’ 하고는, 샤워 물에 비벼서 말려 맞교대로 갈아입는다.

아침기도를 하고 P 신부님의 당뇨 체크를 했다. 210. 약 먹고 이런 수치는 반가운 수치가 아니다. 어머니가 당뇨라 유전이라신다. 1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단다. 200을 넘으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만 전해주었다. 당뇨 뿐만 아니라 당뇨 스트레스도 있다는 말은 차마 못했다. 수치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괜히 덩달아 마음도 우울해질 때마저 있으니 말이다. 이는 나만 그런 것인지도 모르니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

식사를 하고는 가방에 들어있던 정노환을 먹었다. 생 채소를 너

무 먹어서 그런지, 물갈이를 해서 그런지…… 어쨌든 불편한 배를 가라앉혀야 하겠다.

창밖에 비가 내린다. 마치 오늘 김영남 신부님의 부친 김 필립보를 데려가기가 아쉽기라도 하다는 표현처럼 비를 내리신다. 아니, 어찌면 하늘나라를 향한 길을 말끔히 씻어 새 길로 단장해 주시기 위해 내리는 비 일지도 모르지……

‘주님, 잠시 후 있을 장례미사를 통해, 김 필립보를 받아주시어 주님 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소서.’

잠시 누워 배를 따뜻하게 하고, 화살기도를 바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드르렁 드르렁~!

10시 40분. 잠 잘 생각이 없어 시계도 안 맞추고 누웠었는데, 어떻게 다행히 눈이 떠졌다. 얼른 일어나 세수하고 성당에 올라가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니코데모와의 만남(요한 3,1-21)을 읽으며 생각에 잠긴다.

하느님의 업적과 섭리를 인간의 어쭙잖은 논리와 윤리로 평가하여 따질 수도 없고,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나를 통해서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통제할 수도 없고,

하느님은 바람과도 같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요

한 3,8)

불완전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무모하리만치 허락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거스르거나 탓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만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조건과 처지에서 뭐라 칭하거나 불평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불편해도, 주님을 그저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만 살아야 한다.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천상에서 홀로 지복직관을 누리기만 하지 않고, 어둠과 죄악의 사슬에서 해매는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니 감사드릴 뿐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16절)

‘그 탁월함과 지엄하심을 우리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니 감흡할 뿐이옵니다. 천주는 찬미받으소서!’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3절)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뒤를 따르도록 초대하신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17절) 그래서 수동적인 처지의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20-21절)

주님, 저희를 굽어보시고,
불완전하고 나약한 저희를 어여뵈 여기시며,
못난 저희를 헤아려 주시어,
저희가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과오를 용서해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해 주시고,
주님께 향한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살면서 다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주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불완전하고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 찬미받으소서.
아멘.

미사 주례는 그 피정에 들어오신 신부님들 중에 서품·나이 순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L 신부님 차례다. L 신부님은 수요일부터 선배 신부님들의 강론을 요약하시면서 강론을 풀어나가셨다. 신부님은 김영남 신부님의 요한 복음 묵상 피정을 신청해 첫 날 강의를 들어 좋았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황망히 가버리시고, 남겨주신 자료만 가지고 하려니, 생생한 강의를 못들어 아쉽다고 하신다. 성경도 죽은 글자처럼 버려두지 말고, 우리 삶 속으로 살려내야 한다고 하신다. 요한 복음은 아울러 영성적인 복음이며 만남의 복음이라고도 하시며, 첫 제자들과 니코데모, 사마리아 여인, 벳자타 못가의 병자, 태경 소생…… 등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그리고 있다고 하신다. 우리도 육화된 말씀을 살

아닌 성인성녀들을 본받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야겠다고 하신다.

비가 오는 것을 바라보시며, “진달래를 피어나게 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라는 찬미를 올리셨다고 한다. 모든 생물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먹히고, 내 놓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식물-초식-육식 동물은 먹이 사슬 안에서 수동적으로 내놓는 삶을 산다. 그러나 사람의 능동적인 ‘기꺼이 내 놓는 사랑’은 하느님과 연결되게 되고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 준다고 하신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충만한 봉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신다.

내일은 내가 미사 주례이니, 잠시 쉬었다가 내일 강론 써야겠다.

강론 쓰는 중……



성체조배

성당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분들은 아실 것이다. 아무도 없는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제일 먼저 성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의 그 기분이 어떤지! 성당 문을 여는 순간부터,

‘애야, 이제 오니? 어서 와라!’

하며 반기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하다.

성수를 찍고, 제대를 향해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며, 숨을 고르는 순간. 나와 예수님과 단 둘이 마주 앉아 바라보는 그 순간의 평안함과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으랴?

앉고 또 앉아도 다시 또 달려가 앉고 싶은 그 자리, 그 순간!
왜 찾지 않을까?!

‘홍보야’

‘네.’

‘너 그 글 또 읽고 있구나?’

‘네, 이 글(‘어느 사제의 기도’) 읽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글을 왜 자꾸 읽니?’

‘그래도 제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글입니다.’

‘표현……? 혹시 기교 부린 것은 아니고?’

‘제 마음입니다.’

‘하기사…… 그 글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니?’

‘예,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과 은총을 생각합니다.’

‘어이구! 그~래? 그럼, 이제 사람 좀 되라!’

‘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 요새 착각과 유혹 속에 살지?’

‘예……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재밌데?’

‘괜히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힘겹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것마저 지우면 어떻게 살래? 네 말마따나 아무런 재미도 없
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사랑과 은총? 잘 해주니까 욕심만 커지는 것 아니니?’

‘그 욕심도 주님이 심어주신 것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심어준 것은 아닌 것 같
다. 누가 심어주었는지 모르니?’

‘악마의 꾀에 제가 솔깃해서 얼른 받아들였습니다.’

‘좋데?’

‘좋은 것 같기도 했는데…… 맘 고생이 심합니다.’

‘너 알아서 해라. 계속 고민 속에 살든지……’

‘아예, 이런 고민 없애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제가 유혹이나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고 없애
주시고……’

‘그럼 너 뭐할래?’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면서 살죠……ㅋ ㅋ ㅋ’

‘사랑? 너, 수난은 생각 안하니?’

‘수난은 가끔 생각하는데, 제가 부족하고 나약해서 수난 중에 주
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저어됩니다.’

‘그래서 싫으니?’

‘네, 싫습니다…… 그보다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원
하시는 길이요 뜻하신 길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 대신 잘못 건
는다고 내치지만은 말아주시고, 꼭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언제 너 내치더냐?’

‘그러게 말이예요…… 저 좋고 안전한 일만 생각하나 봐요.’

‘아~니 다행이로구나. 수난은 아무나 걷는 것인 줄 아니? 좀 괜
찮은 사람만 선택되는 거야.’

‘퍽-퍽-퍽-!’

‘또 뭐냐?’

‘내일 동생 수녀 은경축 축하미사요……’

‘그게 뭐?’

‘다른 신부님들도 지도 신부님 아버지 장례 미사에도 안 갔는데,
저만 몰래 나갔다 오기도 그렇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고민할게 뭐 있어…… 넌 여기서 기도나 하고 미사나 드려. 내
가 대신 갔다 올게.’

‘네’

‘또, 뭐?’

‘내일 성소주일, 우리 본당 신학생’
 ‘거기도 내가 갔다 올테니까, 넌 기도실이나 지켜.’
 ‘네’
 ‘넌 좋겠다. 대신 해 주는 사람 많아서……’
 ‘네’
 ‘그만 가서 자라.’
 ‘네’
 ‘편안히 주무세요.’
 ‘그래’
 ‘오늘 밤엔 노래 안 불러 주시나요?’
 ‘욕심도 많다. 기도가 아직 단계에 오르지 않은 것 아니니?’
 ‘왜요?’
 ‘너 피정의 집 들어와서, 매일 불러주는데도 못 들으니 말이다.’
 ‘여태, 언제, 단계 정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갈증이라도 있어야하는 것 아니니?’
 ‘갈증요?’
 ‘너, 요새 그거 안 들어도 잘 지내더구나!’
 ‘크~!’
 ‘오늘 강론도 쓰고 수고 많이 했다. 그만 자라!’
 ‘네.’

나는 착한 목자

여기 앉아계신 H 신부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성당 중립동 보좌신부님이셨습니다. K 신부님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목국장도 하시고, 교포 사목도 하시고 사목 일선에서 누비신 사목의 달인이십니다. 그리고 J 신부님과 L 신부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같은 교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후배 신부님들. 이런 분들 앞에서 나이순서가 되었다고 미사를 주례하고 강론을 하려니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고 그야말로 백골난망입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여기 와서 제 어린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중립동 본당 역대 본당 신부님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세례와 첫영성체를 해주신 박병윤 토마 신부님, 나중에 요한의 집을 설립하셨죠. 견진 성사를 주신 경갑룡 요셉 주교님, 김영일 발타사르 신부님, 최광연 모이세 신부님, 김창석 다두 신부님, 김정수 레오 신부님, 그리고 중곡동으로 이사 가서 신학교 추천서를 써주신 김희선 요셉 신부님. 지난 4월 18일 기일을 맞으신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님, 경 주교님과 김희선 신부님만 빼고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중림동 성당의 보좌 신부님이신 김택암 베드로 신부님, 한정관 바오로 신부님, 김유중 마티아 신부님,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탁현수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그리고 중곡동 박찬운 히벨리또 신부님, 김윤태 세례자 요한 신부님, 한성호 알베르또 신부님 등 역대 보좌 신부님들,

제가 추천서를 써드린 신부님들과 오늘 신학교에서 첫 번째 성소주일을 맞는 네 번째 아들 신학생,

유치원 원장 수녀님이셨던 원선시오 수녀님과 프란체스카 수녀님 등 역대 수녀님들

저와 함께 살아주셨던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또 저를 교회의 신부로 존중하고 묵묵히 따라주셨던 평신도 지도자 분들을 기억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늘 수도 서원 25주년을 맞는 동생 수녀와 동창 수녀들, 오빠 언니를 성직자 수도자로 보내놓고 험난한 이 세상을 혼자 개척하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막내를 생각했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로는 다 모자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부활 제4주일인 성소주일을 요한 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서품 성구로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 라는 이 구절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기는 한데, 감히 제 스스로 “나는 착한 목자다.” 라는 말을 하기에는 뉘히 모르게 교만해 보이고 또 평생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차마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로마서 8장 25절에 나오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라는 구절을 서품 성구로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사제가 되어 신학교를 나올 때 학장 신부님께서 저희 부제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 머리 속에 지금까지 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착한 목자는 죽을 목자니까 너희가 언제 죽을 지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10년은 아침에 코피를 터트려가며, 그야말로 죽기를 다해 일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잘했다거나 남이 보아도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단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 10년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 사제 생활 25주년을 되돌아보면, 주제님게도 우스갯말로 한다면, ‘정말 할 만큼 했다.’ 는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주님께서서는 저를 음으로 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웬만한 일은 마치 재벌집 속썩이는 아들들 덮어주듯 다 덮어주시고, 뒤에서 제가 사제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한다는 일은 거의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주시길 때마다 일일이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지나왔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주셨고, ‘그 동안 정말 은총의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와 감흡할 뿐입니다.

힘겹고 지치고 메말랐을 때 주님께서서는 수호천사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였고,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며 갖은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흔적

들을 글로 모아 ‘어느 사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새삼 깊이 다가옵니다. 다소 길지만 신부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사제의 기도

저는 양이오니,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제가 주님께 저를 바치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
제게 행복을 안겨 주셨습니다.
훗날 그 때의 저를 보셨던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같이 그 때 저는 제일 편안했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은 인간이 주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다던 바로 그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단 한 가지 일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바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매 순간 매 자리에 함께해 주셨음을 저는 압니다.
제가 양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의 목자가 돼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다가서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를 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뵈옵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느끼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를 안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저를 바쳤을 때 주님께서서는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리를 가르칠 때 주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미사를 드릴 때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성사를 집전할 때 주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가 환자를 방문할 때 주님께서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서는 제 입을 열어 당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곤경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제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악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제가 분노와 갈등으로 밤을 지새울 때 주님께서서는 휴식을 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독해할 때 주님께서서는 천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텅비고 허전해진 가슴으로 먹을 것을 찾아헤맬 때 주님께서서는 말씀으로 배불려 주셨습니다.

제가 목말라 할 때 주님께서서는 성체성사로 적셔 주셨습니다.

제가 실수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못 본 체해 주셨습니다.

제가 피곤에 지쳤을 때 주님께서서는 제 대신 일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채워 주셨습니다.

제가 유혹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제가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서는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또 범 죄하였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범 죄하여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제가 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곁을 떠나 도망치고 싶을 때 주님께서서는 성령의 힘으로 나를 휘감아 나도 모르는 새에 다시 주님 앞에 앉아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가 다시 주님 사랑의 빛 안으로 나오도록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끌어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저에게 겪도록 하심으로써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제 생애의 순간 순간들이 그리고 저의 전생애의 역사가 주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주님 앞에 다가와서 청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주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셨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청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일러 주시고

성체성사로 먹여 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청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소서.

저는 주님밖에 매달릴 분이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을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청합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께 청합니다.

저는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에게 주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주님께 청합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 저를 복음의 사도로 써주소서.

제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펴 주시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언제나 주님께 다가와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저를 불러 주소서.
주님은 제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저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소서.
아멘.

10여 년 전에 쓴 이 글을 다시 바치게 된 이유는 제 사제 생활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요로운가를 되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제가 쓴 이 글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영을 보내주시어, 주님 사랑의 영으로 휘감아 주시기를…… 제 안에 커다란 열정을 심어주시어, 주님 교회의 사도로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소주일에 선배 신부님들의 뒤를 이어,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이루면서 착한 목자의 뒤를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의 도구로 써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

영과 진리 안에서

오후 묵상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요한 4,5-42)

자기가 경험한 세계와 그 경험 속에 갇혀 인간과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마저 간직하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머리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꾸며나가야만 한다는 절박감 속에 사는, 자기 외에는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도와줄 엄두도 못내는 이른바 폐쇄적이고 다소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2-33)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자기밖에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요한 4,10) 덧붙여 예수님께서서 주실 그 물이 솟는 샘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13절)

그럼 그 영원히渴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물이 솟는 샘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32절)고 하셨다. 그렇다면 주님만이 아시는 먹을 양식은 무엇인가?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34절)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물이 솟는 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일이다. 40주야를 단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서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하는 악마에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신명 8,3; 마태 4,4)고 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이 타는 갈증을 적셔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물이 솟는 샘이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우리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짐 산’ 두 곳으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며, 배타적으로 서로 각자의 장소와 예배 형태만을 고집했다. 가끔 우리도 전례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이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고 고민하는지…… 주님께서서는 이래도, 저래도 주님을 찬미하는 축복의 잔치임을 기억하리라. 주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22-24절)고 하신다.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자기 봉헌과 희생적인 실천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결심과 계획을 세우고, 주님 뜻 안에 있는지 식별해 보고,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리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42절) 라는 신앙 고백이 세상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하자.

주님의 영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 안에 계시면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우쳐 알게 하소서.
주님의 탄생에서 겸손을,
주님의 공생활에서 사랑을,
주님의 성체성사에서 봉헌을,
주님의 십자가상 제사에서 희생을,
주님의 부활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님의 승천에서 희망을,
성령강림에서 그리스도교 사도직을 체득하게 하소서.

저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승을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려,
저희의 일상에서 그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의 뜻을 정화시켜 주님의 뜻과 하나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머무는 가정과 사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
소서.

주님의 성인님,
주님을 뵈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저희의 열망과 열정이
저희의 나약과 부족으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구해 주소서.
주님은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저녁 성체조배

‘너 지금 용쓰고 있니?’

‘예.’

‘좁이 쭈셔서 그러니?’

‘잘 하시면서 그러세요.’

‘가지 그러니?’

‘1시간 채울랍니다.’

‘뭘하러 거기 그러고 있니?’

‘주님 영광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기도가 되니?’

‘시간이라도 채울랍니다.’

‘누가 압니까? 시간이라도 채우면 마음이라도 채워주실지!’

‘.....’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너 지금 뭘하니?’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자장가 부르니?’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별짓 다 한다’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힘들면 5분 더하지 그러니?’
 ‘그렇잖아도 그럴 예정입니다.’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채웠습니다. 주님.’
 ‘기특하구나.’
 ‘저 앞으로도 기도 시간은 꼭 다 채울 터이니 잘 봐주십시오.’
 ‘뭘 봐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바치는 모든 노고를 열매 맺어주
 십시오.’

‘시간 채워주는 건 다 받아주겠지만, 그 다음은 보장 못한다는
 것 알지?’
 ‘네.’
 ‘거긴, 왜?’
 ‘팔이 아프고 쭈셔셔요.’
 ‘병원 가보지 그러니?’
 ‘병원 간다고 다 낫나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낫죠?’
 ‘그래, 알았다.’
 ‘저 갑니다.’
 ‘가 자라. 수고했다.’
 ‘네.’



가거라

오전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요한 8,1-11)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한다.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과거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있다. 그리고 나쁘고 부끄러운 것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정황도 있었고,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까발려지기보다는 잊히고 싶고, 자신도 가능하면 잊고 싶다. 그리고 용서받고 싶고 없던 것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느낀다.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2코린 5,19) 라고 한 말이 우리를 위로해준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군중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고발한다. 그들은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예수님도 확실하게 죄를 지은 여인을 벌주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이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별렀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죄지은 여인에게 돌이라도 던져 죽여라.’고 하면 예수님을 살인 교사죄로 고발할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을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위선자로 몰아붙였을 것이다. “스승님, 이 여자

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요한 8,4-5)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사문화된 법령을 끄집어내느냐?’고 물으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왜 남자들은 어디 가고 이 여인만 잡아왔느냐?’ 등등의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으신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6절) 라고 전한다. 무엇을 쓰셨을까? 그냥 시간 끌기 작전이셨을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계속 촉구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7절) 그러시고는 마치 누가 돌을 던지는지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또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8절)고 전한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복음사가가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9절) 라고 전하는 내용이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한다. 그런데 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나 보다. 아니 그 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부당함을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씩 깨닫게 되나 보다.

예수님과 그 여자만이 남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신다.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10절)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드린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11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른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

지 마라.”(11절)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잔소리도, 아무런 조건도 내 걸지 않고 그냥 그렇게 놓아주신다. 아마 그 여인은 정말 ‘가도 되나?’ 싶었을지 모른다.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도움을 받아 사는 존재다. 감사와 보은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리만치,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흠송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다. 루치펠 대천사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반발하여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만 용서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자꾸 그리고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듯하다. 문득 자캐오의 말이 떠오른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루카 19,8)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편함과 이득을 위해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들키지 않기를 바란다. 또 들키더라도 그것을 알게 된 다른 이가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고,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용서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상을 해야 하거나 벌을 받더라도 가급적이면 계속 일하고 사는 데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도 한다.

잘못임을 깨닫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잘못을 다시 바른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걸릴까 봐, 벌을 받을까 봐, 지금의 자기 자리와 상황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서 용서를 청하는 것은 바른 참회의 길은 아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하느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패악을 끼쳤는지를 깨닫고, 뉘우치며,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청하며,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한 되돌리고 보상하며, 되돌리거나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워 갚으며, 실제로 자기 자신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비로소 회개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용서받으리라는 믿음이 없다면, 아니 우리가 커다란 벌로 완전히 파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선다면, 우리는 죄를 뉘우치지도, 고백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희망과 그 희망 때문에 자기 잘못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는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하느님 아버지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랑의 체험에서 나온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한다.

용서는 어쩌면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놓은 하느님 사랑과 그 사랑에 힘입어 선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의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그 여자를 용서해주셨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왜 잘못된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해주셨

을까?

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인류를 다스릴 것인가? 윤리주의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어 바로 잡으려고 하고, 영성주의는 죄를 지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고 한다. 하느님의 이 고민을 누가 알까 싶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세상에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 사랑을 나누고자 하셨다는 데, 거꾸로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셨을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죄악에서 구하시는 방법으로 용서를 택하셨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이 물음을 우리 개인의 상황에 비추어 헤아려 볼 수 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우리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이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괴롭다. 신자로서 사랑을 해야만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에 괴롭다. 신자를 떠나서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이 분노와 미움에 휩싸일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피하고 싶고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은 악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결국 분열과 고통뿐이다. 나에게 악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대항하여 내 안에 복수와 저주를 간직하면 결국 내 마음도 악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악이 원하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로마 5,12 참조), 악을 세상에 퍼트리고 악의 세력을 더 크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악에게서 내 마음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악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상황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용서다.

하느님도 하느님이시기 위해서는, 사랑자체이신 당신 자신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밖에 없으셨다.

둘째,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더욱 더 악의 세력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를 통해 악마는 더욱 더 세상을 악하게 꾸민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악의 세력이 창궐하는데 협력하는 공범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처사에 반발하며 떠난 사람이 전보다 더욱 더 비참해지고 악해진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떤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보고 연민의 정이 생기기보다 고소해 하는 나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일정부분 악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악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씩씩해진다. 악은 이런 식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과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 죄악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간다. 그래서 악은 인간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빼앗기게 하고, 인간 상호간의 신뢰 관계를 상실케 하며, 우리 스스로를 불편케 하여 좋은 인성을 파괴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를 악마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먼저 찾아가 화해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럴

수룩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쉬워서 또는 자기가 잘나기라도 해서 우리가 수그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꾸로 더 어긋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그는 더욱 더 악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간다.

하느님께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악에게서 구하셨다.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류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던 것이다. 마치 부모와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파멸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자신이 대신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말이다.

셋째는 이렇게 우리를 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마태 6,12-15)

그러나 가끔 우리는 용서하기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बैं딩이 소가지 같이 좁아터진 마음이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도 용서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인

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당했다고 느끼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믿고 내 미움의 끈을 풀어야겠다. 우선 나부터 악의 고리 사슬을 끊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도 바오로는 말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필리 3,8) 또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11-12절)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 사랑을 넘치고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다가가자.

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주님 사랑의 감정으로 몰아내 주십사 청하면서 주님께 다가가자.

주님 사랑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용해서 악마의 나라를 만들려는 악을 쳐 이기고, 주님 부활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주님에게서 떨어져나가고 나 자신도 괴로워지는 악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짓지 말자.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용서받았을 때 어땠는가?

용서해주었을 때 어땠는가?

해를 끼친 사람 때문에 상처 난 마음을 치유받고 싶은가?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받고 치유되어 새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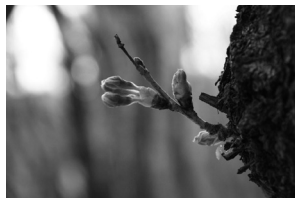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죄악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새 삶을 살겠는가?

용서를 청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지 않는 사람은 악마에게 사랑을 빼앗긴 사람이다.

용서를 청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이다.

용서하는 사람은 악에게 상처입고 손상된 마음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회복한 사람이다.

용서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악을 쳐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이다.



존중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인격과 그 인격을 지탱해주는 그들만의 과거를 존중하게 하소서.

그들의 과거와 그 경험에 기초하여 세워진 가치관과 행위들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죄가 아니라면, 존중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그들의 온전한 자유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기쁘게 지지하게 하소서.

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사고와 행동이 진정 나를 살찌우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기 위해 보내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보는 그들의 단점과 부족함 너머에 그들의 장점과 가치가 있으며

내가 느끼는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보다, 주님께서 고귀하게 만들어내신 그 자신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겪는 불편함, 손해, 거북함 등이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에 기초한 것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온 세계 이외에도 그들의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미지의 거룩함을 향해 봉헌하고자 하는 그들 나뭇의 지향을 존중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봉헌과 헌신이 주님께 다다르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숨어 활동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들의 예식과 희생, 봉헌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문화와 예식을 존중하고 주님의 너그러우심으로 받아들여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함께,

그들의 선함과 거룩함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 모든 이와 모든 것을 합하여 주님 나라를 완성하소서.

아멘.

저는 믿습니다

미사 강론 때 K 신부님은 버나드 추기경님과 S 신부님처럼 확신에 차서 사목 활동하시는 신부님들이 부럽다고 하시면서, 비움과 머뭇머뭇함을 묵상하셨다고 하신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과연 신부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평소에 휴게실에서 신자들과 많은 나눔을 하시면서 머뭇머뭇의 필요성을 느끼시며 주님과도 깊이 머물며 친교를 나누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오후 묵상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다(요한 9,1-41)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이 먼 병자를 고쳐주자, 어떤 사람들은 반기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한다. 싫어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아는 하느님과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기 심리가 뒤틀리자 눈을 뜨게 한 사실을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바리새자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16절) 라고 단정한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는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소경에게 ‘~ 까지 가서 씻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죄짓게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리사이파들에게는 ‘소경이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하는 사실이나, 소경의 답답하고 힘에 겨운 삶은 안중에도 없다. 그들에게는 안식일 계명이 지켜지고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16절) 하는 정당한 문제제기도 무시해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리사이들에게는 이번 기적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무효다!’ 라고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의미나 군중에게 끼칠 영향이나 효과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듭 그 부모와 소경에게 그가 안식일에 ‘(고치는) 일’을 했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마저 부정하려고 든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19절) 그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러나 기적이란 사실은 증명해 주면서도,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한 논쟁에는 끼지 않으려고 침묵해 버린다. 바리사이들은 이러한 부모의 움츠리는 태도에서 힘(?)을 얻는다. 바리사이들은 그 소경이었던 사람을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24절) 하고 욱박지른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동의해주기를 요구한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아예 예수님과 눈멀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싸잡아 몰아세운다. “당

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34절)

드디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안식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의 극치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맘에 들지 않으면 하느님마저도 부정하고마는 자기중심주의다.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어야만 하느님이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 분이 라면 그는 하느님도 아니다.’ 라는 식이다. 게다가 내 뜻을 거스르거나,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세상 그 누구도 제거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자기중심주의 즉 인간의 교만에 의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나 보다.

그들의 속셈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 드러나 버린다.

눈이 멀었던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25절) 이제 반대자들의 질문을 통해 차츰 차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 그 소경이었던 사람은 사람들이 눈이 멀었을 때 거지노릇을 했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을 때, 자신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9절) 라고 이미 명백히 밝혔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가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고 오히려 되묻는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

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와 나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도 (더 알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27절)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여부에 대해 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그 기적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말로써 복음을 선포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31-33절)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듯 양심에 걸리게 되자 화를 내고 저주한다.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34절)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34절)

자연스럽게, 눈이 멀었던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불확실했지만, 질문과 사람들의 숨은 생각이 드러나면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35-37절)

그러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은 “주님, 저는 믿습니다.’하며 예수님

께 경배하였다.”(38절)

결과적으로 그는 애초에 제자들이 주님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2절) 라고 했던 질문에, 주님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3절) 라고 하신 말씀을 증언해 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의 치유 이야기는 단순히 소경이, 눈을 떠 세상사물을 보게 되었다는 기적을 넘어선다. 이 이야기는 그 기적 이후 각 사람들의 행동에서 드러난 각기 감춰진 의도와 속셈을 확연히 보게 해준다.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믿게 되었다는 기쁜소식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쁜소식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보고 있는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들이 기쁜소식을 거부하고 축소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우리의 일상에서 보고 있는가?

그 때 어떻게 응답하는가?

아예 그런 것을 못 보는가? 아니면, 본 것이 무서워 못 본 체하는가? 못 본 체한 본 것은 남아서 우리를 믿음과 회개에로 부른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쳐 우리의 양심이 응답하라고 터져나갈 듯이 아우성친다. 선포하라.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세 가지를 발견한다.

첫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 물을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확실한 체험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복음을 보면, 부모조차 자기들이 다칠까봐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23절) 라고 하면서 피해갔지만, 눈멀었던 사람은 과감하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9절) “그분은 예언자 이십니다.”(17절)

둘째, 인간이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신 안에 갇혀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발붙이지 못한다. 주님께서서는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다. 그렇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과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그래서 그 은총을 받을 수도 없었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28-29절)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39.41절)

셋째,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말을 듣고 판단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좋은 마음과 의도를 헤아려주신다. 사람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증언하자 회당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몸소

찾아가 만나신다.(35절 참조) 또 이런 모습은 사무엘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도 나타난다. “(하느님)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1사무 16,7)

장미 꽃 한 송이보다 화려하지도 않고 모든 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들꽃 같은 저희를

따로따로 만드시고, 하나하나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며, 귀중히 여기시는 주 예수님,

제 눈을 열어주시어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숨겨진 주님의 모습을 뵈옵게 하시고
그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협조하게 하소서.

아멘.



밤 성체조배

‘너 피정 와서 기도했니? 글 썼니?’

‘둘 다 했습니다.’

‘둘 다를 어떻게 하니?’

‘토마스 머튼도……’

‘다 하긴 했니?’

‘네,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채지나 마라.’

‘어디 다른 데 가서 떼쓸 데도 없는데요.’

‘알긴 하는~구나!’

‘다른 누가 채워줍니까?’

‘귀찮다. 어쨌든 기도하느라 수고했다’

‘봐주시고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가면, 너 빠지지 좀 말아라.’

‘그러기에, 아예 그런 일은 벌이지도 마셔야죠.’

‘그럼, 누가 세상의 죄를 이어 짊어지랴?’

‘짊어질 때 짊어지더라도, 적당히, 제가 견딜 만큼, 제 성격 봐서……!’

‘너 지금 웃기는 거 알지?’

‘네. 그래도 그럼 제가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긴 짊어진 겁니까?’

‘으~휴! 무게나 늘리지 무슨?’

‘그럼 뭐 어떻게 하라구요?’

‘묵묵히, 잠자코, 티 좀 내지 말고, 이렇게 공치사하지 말고, 수
더분하고, 진정으로……’

‘ㅋㅋㅋ’

‘나가거든, 여기서처럼 잠도 많이 자고, 시간 내서 운동도 좀 하
고…… 알았지?’

‘네, 일 좀 줄여주세요.’

‘네가 만들지, 내가 얹어 주든?’

‘그럼 제가 안 해도, 다 잘 굴러가는 건가요?’

‘천천히 해. 너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아프지 말고. 괜히 안쓰러워지고, 신자들 보기에 안 좋잖아.’

‘네.’

‘기쁘게 살렴.’

‘네.’

‘행복하고.’

‘네.’

‘자주 보자.’

‘네. 저녁 미사 때 뵈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가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요한 11,1-57)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미래를 지금까지 꿈꾸어 왔고 설계해 왔다.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금도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겠다하는 좌우명이라든가 삶의 철학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꿈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인 면이든 삶의 지향점이든 말이다.

그런데 내 어렸을 때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지금의 내 지향이나 결심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살면 살수록 내 꿈과 결심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점점 멀어져만 간다. 이것이 우리네 삶에 커다란 상실감과 아픔을 가져다준다.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내게는 너무나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실감을 안겨준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꾸어 왔던가?

오빠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희망을 상실한 마르타가 아쉬움을 가득 안고 말한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21절)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 왔던 좋은 것들은 그저 한낱 이상에 불과하단 말인가? 허망한 것인가?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23절)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야 마는 허상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에 불과한 것인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 지상에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영원한 숙제처럼 우리의 좋은 꿈은 그저 우리 눈앞에 띄워진 풍선이란 말인가?

마르타가 말한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24절)

구원이라는 숙제는 우리가 죽은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럴 순 없다.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향해 말한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37절)

우리의 삶이 그저 후세에서만 완성되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허망하고 무의미하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우리 생의 고난의 굴레를 돌고 돌아야만 하는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우리는 그저 이 문제를 운명이나 사주팔자에 견주며 미래를 알아맞힌다고 하면서 요행이나 행운에나 기대는 점쟁이들에게 맡길

순 없다. 그리고 또 자신의 육체나 심리, 정신이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세상만사를 자기 것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철부지 구도자들에게 맡길 수도 없다. 나와 너, 나와 세상, 나와 우주의 문제를 내가 주체적으로 풀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오만이거나 착각에서 비롯된 어리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되지도 않을 일이니까 말이다.

우리가 이 한계와 제한된 세상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주인, 즉 주 하느님 안에서만 풀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하면서도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면서도 감사히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 슬픈 일도 겪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세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무사히 살아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듭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해 주시는 주님의 커다란 사랑 때문이다.

늙어가고 병고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이르는 영광의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

이다.

하느님은 먼 훗날 죽은 다음에야 온전히 뵈올 수 있고, 하느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은 죽은 다음에나 완전히 누릴 수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 예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총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25-26절)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물으신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26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구원의 생명을 건네주고 계신다고 믿는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르타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하신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40절)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주님께서 라자로를 부르신다.

주님께서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 묶여,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감옥처럼 살고 있는 고단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43절)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를 엮어매고 있는 온갖 제한과 굴레

와 구속으로부터 나와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빛을 비추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고 신앙의 신비를 살도록 선포하라고 명하신다.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44절)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오늘 주님의 생생한 이끄심을 체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나가기로 하자.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로마 8,11)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하신 우리를 죄악에 묶어 놓고 있는 장애는 무엇인가?

어떤 장애와 죄악이 우리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가?

어떤 장애와 죄악이 우리 자유를 구속하고, 선행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그 죄악의 뿌리에서 헤어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도록. 부활이요 생명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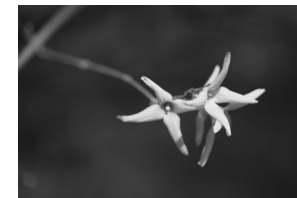
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주님께서서는 신앙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죄악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묶여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구하러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 형제자매들을 사로잡고 있는 허망한 꿈과 그릇된 취득과 분배방식이라는 “돌을 치워라.” 그리고 그를 묶고 있는 께풀을 벗겨,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라고 초대하신다.

주님을 향해 희망의 눈을 뜨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자.

이 죄악과 세상의 죄라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 달라고. 장애에서 해방되어 다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청하자.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 장애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와 같은 장애로 헤매는 형제자매들의 돌을 치우고 풀어주어 걸어가도록 주님께 청하고 도와주자.



부활 찬송(Exsultet)

용약하라, 하늘 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 나라 신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찬미하라, 임금의 승리. 땅도 기뻐하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영원한 임금의 광채 너를 비춘다. 비취진 땅아, 깨달아라, 세상 어둠 사라졌다. 기뻐하라 자모신 거룩한 교회, 위대한 광명으로 꾸며진 거룩한 교회. 백성의 우렁찬 찬미 소리 여기 들려온다.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부제(사제)와 함께.
-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송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오니, 성자께서는 우리 대신 성부께 아담의 죄 갚으시고, 거룩한 당신 피로 옛 죄 씻으셨나이다. 파스카 축일 오늘 지내오니, 참된 어린양 오늘 살해되시어, 그 피로 우리 마음 거룩해지 나이다.

이 밤은, 주 친히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에서 불러내시어, 홍해 바다 마른 발로 건네 주신 거룩한 밤. 거룩한 이 밤은, 불기둥의 빛으로써 죄악의 어둠 몰아낸 밤. 이 밤은, 온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 신자들을 세속 온갖 죄악과 죄의 어둠에서 구원하여, 은총으로써 성덕에 뭉쳐 준 밤.

이 밤은, 죽음의 사슬 끊으신 그리스도,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밤. 오, 오묘하도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오, 헤아릴 길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탓이여! 너로써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거룩하여라, 이 밤. 죄를 용서하고 허물 씻으며, 도로 준다. 죄인에게 결백, 우는 이에게 기쁨.

은총 가득히 내리는 이 밤에, 아버지 받으소서, 향기로운 이 저녁 제사. 주님께 이 초를 성대하게 봉헌하오며, 벌들이 만든 것을 성직자의 손으로, 거룩한 교회가 봉헌하나이다. <이미 들려오는 불기둥의 찬미 소리, 하느님 영광 위해, 밝은 불이 켜졌도다. 불꽃이 아무리 갈라져도, 나누어 받은 불꽃은 감소될 줄 모르며, 밀이 녹아 타오르고, 어미 벌이 마련한 밀, 귀한 초를 만들었네.> 오, 참으로 복된 밤, 하늘과 땅이 결합된 밤,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된 밤! 그러므로 주님, 주님 영광 위하여 봉헌된 이 촛불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어, 이 밤의 어둠 물리치소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밝은 천상 광채에 합쳐 주소서. 셋별이여, 이 불꽃을 받아들이소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류를 밝게 비추시는 셋별이여.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집으로 돌아오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16.17)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요한 21,15.16.17)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16.17)

오늘 강론에서 P 신부님은 피정에 들어오시기 전에 허리가 삐끗하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몸이 무척 아픈 상태로 들어오셨다고 하신다. 묵상 중에 예수님께서 벳자타 못가의 병자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요한 5,6) 하고 물으신 그대로 신부님께 물어오셨다고 하신다. 그 신부님은 ‘네, 주님,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계속 걸으면서 묵상을 하셨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이 걷거나 누워서 지내라고 했는데, 피정 들어와 지도 신부님의 강의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앉지 않고 미사와 기도 시간과 식사 시간 외에는 걷고 누워있으면서 묵상했다고 하신다. 다행히 지금은 진통제 약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 기쁘다고 하신다. 신부님은 “교구 내의 여러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시며 사제단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신다.

P 신부님을 비롯한 주님의 사제들 모두가 늘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청하며 화살기도를 바친다.

피정 중에 저를 비롯한 신부님들의 기도생활을 위해, 특별히 짜고, 맵고, 단 음식을 먹지 않는 저에게 특식을 마련해 주시면서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님과 교구 사제단, 피정 지도 신부님, 사제평생교육원과 피정의 집 직원들 모두와 피정 동안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본당 신자분들과 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파견 미사를 마친다.

Ecce quam bonum et quam jucundum habitare fratres habitare fratres habitare fratres in unum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고 형제들이 함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 얼마나 좋은고

Laudate Dominum omnes gentes Laudate eum omnes populi
못 나라 백성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온 세상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Quoniam confirmata est super nos misericordia ejus et veritas Domini manet in aeternum

주님 사랑 우리위에 꺾꺾하셔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리라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in saecula saeculorum. Amen.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

이번 피정동안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동안은
주님과 교회의 선배 신부님들을 따라가기에도 벅했는데,
저도 모르는 새에
함께 가는 형제 신부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형제 신부님들을 기꺼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함께하면서,
바라봐 주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고,
지지하고,
밀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만들며,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착한 목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 피정 일기

어느 한 주간

교회인가 2013년 6월 29일

발행일 초판 1쇄 2013년 6월 29일

글 심홍보 베드로

사진 김덕규 요한

펴낸이 전갑수

펴낸곳 기쁜소식

1989년 12월 8일 등록 제 1-983호

서울 성북구 성북로 5길 44(성북동1가)

☎ 02 · 762 · 1194-5 FAX 02 · 741 · 7673

E-mail: goodnews1989@hanmail.net

ISBN 000-00-0000-000-0 00000

가격 0,000원